

사업현황 보고서

보고일: 2020년 12월 13일

1. 개인 정보

이름	이동윤	생년월일	1970. 8. 3. (만 50 세)	성 별	남
주 소	AEP #11. K. P. 119 Tirana 1001 Albania			연락처 1	+355-69-401-9662
이메일	edongyoon@gmail.com			연락처 2	+355-69-401-9663
사역지	알바니아	도시	Tirana (Farke)		
주업무	1. 알바니안 무슬림전도		2. 지부장사역		3. 교육사역
	합신	소속단체	HIS/GMP	파사회사	영화교회

2. 가족 사항

관 계	이 름	나 이	관 계	이 름	나 이
처	정인혜	만 50 세	장남	이형석	만 17 세
녀	이형민	만 15 세	차남	이형범	만 11 세

3. 사업지역 설명

인구, 종교, 정치적 상황, 기타

인구

2011년 실시한 인구조사에 의하면 알바니아에는 2,821,977명이 살고 있으며, 인구의 46퍼센트는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시대에서 벗어난 이후 전과 다른 한가지 특징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합법, 불법적)을 떠나고 있습니다. 주요국가로는 이탈리아, 그리스, 영국, 미국등입니다. 2004년 한해에 외국로 나간 알바니안인 숫자가 백만명이라고 정부는 발표했는데, 이것은 개방후 15년간 해외로 나간 수치와 비슷한 수였습니다.(2015년 봄 코소보의 많은 사람들이 도보로 국경을 넘어 독일로 향했는데, 알바니아에서도 가난한 시골의 많은 사람들은 독일로 길을 떠났습니다. 망명을 신청한 것이지요. 그러나 독일정부는 대부분의 알바니아인들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망명신청자들과 더 나은 삶을 위해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다르게 평가하고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티라나는 알바니아의 수도인데, 공산주의가 무너지던 1990년에는 25만명의 인구가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2011년 현재 6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140%나 더 성장한 것의 이유는 외국인들의 유입도 있지만, 이보다는 시골거주민들이 고향을 두고 도시로 나왔기 때문입니다.(팔커의 경우도 1동과 2동으로 나뉘어 있는데, 2동 거주민은 대부분 북쪽에서 내려온지 10년이 채 안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바니아에는 여러 소수민족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경 부근으로 그리스인, 세르비아인, 마케도니아인, 몬테네그로인 그리고 짐시라로 알려져 있는 롬 등이 이들입니다.

<p>종교</p>	<p>알바니아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와 더불어 유럽에서 국민 다수가 이슬람교를 믿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한때 알바니아는 공산화 이후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서 1967년 무(無)종교 국가를 선언하여 모든 모스크와 교회를 파괴하거나 박물관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1991년 민주화 이후 다시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었다.</p> <p>2011년 알바니아의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56.70%가 수니파 무슬림이며, 2.09%는 이슬람교에서 변형된 신앙인 벡타쉬교에 속한다. 알바니아의 기독교의 교파는 로마 가톨릭교회가 약 10.03%, 알바니아 정교회가 약 6.75%를 차지한다. 알바니아 정부는 2011년부터 개신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하였다. 또한 13.79%는 특정 종교를 믿지 않으며(무응답/무종교), 2.5%는 확고한 무신론자들이다. 5.49%는 기타 종교라고 대답하였다.</p> <p>이슬람교는 전국적으로 분포하지만, 로마 가톨릭교는 주로 북부지방에, 알바니아 정교회는 그리스와 인접한 남부 지방에 주로 분포한다.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약 61%의 알바니아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종교가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하여 이슬람 국가 중에서는 상당히 세속화된 나라이다.</p> <p>그러나, 갤럽의 연구에서 표본 선정에 있어 시골과 도시를 인구비로 균형있게 다루었는지 아니면 도시 혹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현지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로서 체험적으로 볼때 시골과 도시는 큰 차이가 있으며 시골의 주민들은 종교적 활동에 있어서 도시민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p>
<p>정치</p>	<p>알바니아는 1912년 11월 12일 블로라에서 공화국을 선포했다. 알바니아 헌법은 1998년 11월 28일에 국민투표로 채택되었다. 의원내각제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나 실권은 총리에게 있다. 현재 대통령은 일릴 메타, 총리는 에디 라마이다. 현재 나토회원국이며, EU가입을 신청한 상태에 있다.</p> <p>과거 사회주의 계획 경제 국가였던 알바니아는 민주화 이후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하였으나 1997년 금융 피라미드 사건으로 인해 내전에 휘말리기도 했다. 현재 알바니아의 경제 규모는 약 134억 달러(2011년) 규모로서 세계 115위이다. 2008년 조사 당시 알바니아의 산업구조는 20.6%가 농업 등 1차산업이며, 19.9%가 제조업 등의 2차 산업이며, 59.5%가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이다.</p> <p>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식자료에는 실업율이 10%초반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일자리가 매우 부족하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가족을 두고 외국에 불법노동자로 나서고 있다. 민주화가 이뤄진지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상대적 빈곤을 느낌으로 공산주의 시절을 그리워 하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다.</p> <p>치안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며, 많은 이웃 국가들의 원조로 사회기반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는 중에 있다.</p> <p>지난 12월 9일 새벽 01:10 경, 야간 통행금지를 위반하고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클로디안(Klodian Rasha, 25세)을 경찰이 추격중 발포를 했는데, 두발 중 한발에 청년이 사망함. 이 사건이 SNS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내무부 청사와 총리공관에 모여들어 폭력적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이에 경찰도 물대포와 최루탄을 사용하며 진압하는 과정중에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함. 야당이 이 사건을 근거로 정권의퇴진을 요구하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중에 있음.</p>

4. 업무 설명

현재 하고 계시는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업무	내용
전도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레리 가정(블레리와 부인 발리, 아들 로이)과 매주 한번씩 정기적으로 말씀을 나누며 복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이동제한등의 조치이후 만남이 크게 제한 받고 있습니다. • 조니(체리메)가정과 겐피(케다, 에닐리오)와 가니우 가족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간암으로 사망한 언니 ‘리아’의 죽음을 앞둔 병실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했던 사건 이후 어색해진 체리메와의 관계가 인간적인 면에서 회복된듯 싶습니다. 계속 기도하며 개종이 아닌 회심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 베드리가정에는 기회를 따라 방문하여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딸 리사는 독일의 요양병원 간호사로 일하는 중에 있는데 두번의 약혼에 실패하여 마음이 많이 상한데다가, 함께 모여사는 친척과 이웃 알바니아사람들과 불화를 겪고 있습니다. 독일은 현재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리사가 연말에 방문하면 개인적으로 만나 복음을 나누려고 계획중입니다. 가난해진 마음에 복음이 심 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센터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학원, 복음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사태로 초중생 43명 8개반, 어머니반 3명의 영어교실과 Kpop과 한국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중.고등학생 대상의 한글교실이 3월이후 중단되었습니다. • 언어학원에 나오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어린이 복음모임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3월말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모임이 멈춰진 상태입니다.
코로나 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웃집 재봉사인 ‘히레’에게 부탁하여 마스크를 제작하여 100여가정을 방문하여 전달하였습니다. • 2차로는 수선집에 마스크 제작을 주문하여 질 좋은 마스크를 제작 마을 보건소와 두곳의 유치원에 전달하였습니다. • 3차로는 지난 9월중순 알바니아 학교 개학에 맞춰 우리 마을 Farke 1동과 2동에 위치한 두개 학교에 마스크 1100개를 제작하고 전달하였습니다. • (합신교단과 세 교회와 두명의 성도가 보내준 250만원가량의 현금으로 사역함) • [이나의 움직이는 책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사태로 정부의 집합금지명령과 그 이후 사회적 거리유지 지침 조건의 모임을 하려 해도 통풍이 어렵고 좁은 공간에서 모임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 센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시점이후 현재까지 동화책(영어, 알바니아어)과 성경이야기 소책자를 구입하여 패키지를 만들어서 복음모임에 나왔던 아이들의 집집을 방문하여 대여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줌을 이용한 영어코스와 한국어코스가 진행중입니다. 영어코스에는 30대의 여성 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어코스에는 중고등학생들 중심으로 2개반이 운영중입니다.

체육교사 사역	<p>[체육 교사 사역 : 총체적선교, 복음전도의 거점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Q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은 알바니아에있는 복음주의 교회의 성장을 지원 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의 학문적으로 풍성한 국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며, 하나님 의 영광에 최대의 영향을 미치도록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 사의 대부분이 교사선교사로 파송받아 활동중에 있으며, 현재 체육을 전공한 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체육교육학위를 갖고 있는 제가 학기의 주중 낮 시간에는 파트타임 체 육 교사로 학 교의 비전을 위해 K-5 학년을 맡아서 체육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알바니아 선교 를 위해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온 선교사 자녀(MK)들이 다수 이 학교 를 다니고 있습 니다. • 교사(체육)의 직업적 정체성을 갖는 것은 또 한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크 리 스찬이 무슬림 공동체 마을에서 그들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의 삶과 태도를 통 해 복음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나누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GMP 알바니아 지부장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월초 제가 3년의 임기로 알바니아 GMP지부의 대표에 선출되었습니다. 임기의 시작은 4월이나 이전 지부장의 출타로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 코로나 사태대응 : 코로나 대응팀을 구성하여 예상 시나리오작성 및 대응 시나리오를 업데이 트하며 대응하는 중에 있습니다. • ‘아코마(아빠는 코로나 시대에도 마중물을 준비한다.)’라는 이름의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기획 하여 실행중에 있습니다. : 매주 회원들 한명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짧은 강의(선 교, 삶, 복음, 문화, 역사등의 주제)를 준비하여 자신의 유튜브에 게시하고 이를 시청 후 매주 화요일 정한 시간 ZOOM에서 만나 강의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3일에 시작하여 이번 12월 22일을 마지막으로 시즌1이 마칩니다. • 신임 선교사 돌봄사역 : 코로나 상황임에도 한가정이 8월 8일 입국하였습니다. 이 가정의 초 기정착과 언어사역 그리고 현지적응에 필요한 오리엔테이션등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5. 앞으로의 업무 계획

업무	내용
전도사역	• 지속적인 방문과 복음의 나눔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동도서관	• 도서대출과 SNS를 통한 나눔사역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교육사역 (온라인)	• 줌을 이용해서 새롭게 시작된 한글반과 영어반을 통해 교육과 복음나눔의 사역을 지속 확장시 켜 나가고자 합니다.
체육교사사역	• 크리스찬 학교의 교사로 사역을 지속할 것입니다.
GMP알바니아 지부장사역	• 2021년은 알바니아 현대 선교 3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GMP의 선교전략에 대한 논의와 팀 개편등의 변화를 위한 시도를 기획중입니다. 현재 21명의 선교사가 속해있는데, 이들이 현 알 바니아에 가장 필요한 우선 사역을 선정하는 작업과 협업을 통하여 핵심사역을 일으키는 시도 를 할 것입니다.

6. 기도제목

1	하나님께서 알바니아에서 이루실 구원을 기대함으로, 매일 소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2	‘이나의 움직이는 책방’ 사역과 ‘온라인 교육사역’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지적인 성장이 있을뿐 아니라 만남과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복음을 만나도록.
3	비전공동체 모임을 통해 GMP 알바니아팀을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도록.

특별기도제목1. 2021년 GMP 알바니아팀의 선교비전

GMP 알바니아 팀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GMP알바니아팀은 27년간 알바니아에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 동안 많은 일들을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갈수록 전도와 제자훈련, 교회개척의 일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뛰는데 어떤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20년전에도, 10년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알바니아 성도는 1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알바니아에 건강한 교회가 더욱 더 많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개별적인 열심과 개인적 소명이 아니라 함께 팀으로 일을 이뤄야할 때라고 많은 동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사역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함께 모여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내부의 고민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일

둘째, 알바니아 현지 교회 리더들의 필요와 비전을 듣는 일

셋째, 타단체 리더들의 알바니아 이해와 비전을 듣는 일

넷째, 선교학자들의 관점에서 선교를 바라보는 일

이를 위해 일주일에 2시간을 3개월간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 그리스도의 희생과 용납의 정신이 GMP 알바니아팀 안에 충만하도록.
- 계획하는 프로그램과 발제자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준비되고 섭외되도록.
- 구체적인 비전과 방향들이 발견되도록.
- 모든 알바니아인들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위해

특별기도제목2. 알바니아 교회를 위해

알바니아의 주요 지상파 방송국 중 한 곳이 종교집단에 대한 수사 다큐멘터리를 준비중입니다. 이번 기획의 주요한 목적중 하나는 복음주의 공동체를 비난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교회 내의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 교회를 방문하고 교회목사 뿐 아니라 신자들을 인터뷰 하고 촬영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협의회에 문의를 하지않고 자신들이 전국의 불특정 교회를 기습방문하여 접촉을 인터뷰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이에 복음주의 협의회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지혜를 모으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여름 알바니아의 콤비나트라라는 지역에서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사자가 복음주의 교회에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일로 교회가 죽어도 살수 있다는 부활을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자살을 하도록 방조했다고 미디어가 콧 집어서 몰아 붙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사건이 수습되고 정리 되었는데, 다시 이 사건을 이슈로 복음주의 교회를 수사하는 프로그램을 준비중인 것입니다. 이 방송이 편향된 시각으로 제작되어 여론을 왜곡하여, 복음주의 교회를 알바니아 사회에 해악을 가하는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만들우려가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지진피해를 위한 다양한 지역나눔과 지원 그 리고 코로나 사태에 마스크와 물품 나눔등의 사역들마저도 부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기도제목

- 모르드개와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했던 하만의 기획이 수포로 돌아갔듯이, 이들의 기획이 무너지고 주님이 알바니아 교회들을 지켜주시도록.
- 복음주의 협의회(VUSh)의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이 지혜롭게 이 위기를 대응할 수 있도록.
-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여 서로가 더욱 하나되는 시간이 되도록.
- 알바니아 교회가 복음에 붙들려 분명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